BP, 멕시코만 유정 밀봉에 성공

사고 5개월만에 시멘트 투입작업 완료 ... 원유 490만배럴 유출

멕시코만에서 대규모 원유를 유출시켜 환경 대재앙을 초래했던 유정이 사고발생 5개월여 만인 9월19일 사실상 완전히 밀봉됐다.

사고 유정 소유주인 영국 석유기업 BP는 “사고 유정 옆에 굴착한 감압유정 개발시추공Ⅲ(Development Driller)을 통해 사고 유정인 마콘도 252에 시멘트를 투입해 봉쇄하는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9월18일 밤부터 밀봉된 사고 유정에서 원유 누출이 없는지 여부를 최종 확인하기 위한 압력측정 실험에 들어갔다고 CNN 등 미국언론이 보도했다.

사고 유정의 완전 밀봉이 선언되면 4월20일 멕시코만 해저에 BP가 소유하고 있는 마콘도 유정의 원유 시추를 위해 설치됐던 시추시설 디프 워터 호라이즌의 폭발 및 화재로 시작된 미국 역사상 최대의 원유유출 사건은 5개월만에 일단 종식되는 셈이다.

미국 정부는 멕시코만 원유유출 사태로 490만배럴(2억600만갤런)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80만배럴(3360만갤런)의 원유가 회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연방 어류야생동물보호국은 BP의 사고로 총 4676마리의 조류가 수거된 가운데 3634마리는 죽어 있었고, 1226마리의 조류는 기름에 오염된 채 수거됐다고 발표했다. 또 멕시코만 일대의 해산물도 상당수 오염돼 상당기간 어획작업이 금지되는 등 환경 대재앙이 발생했다.

사고 유정은 일단 밀봉이 됐지만 멕시코만 일대 환경피해의 수습 및 복구에는 수년이 걸릴 전망이다, 앞으로 멕시코만 주변지역 어민 등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과 각종 손해배상 소송도 계속될 전망이다. <저작권자유협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9/20>